

농어촌 청소년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경준

한국청소년개발원

The Present Conditions of Rural Youth Welfare Facilities and Policy Measures for Development

Kyeong Joon Kim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ummary

Rural youth welfare was defined to provide the preventive services as well as the protective and curative services such as education, job training, youth activity, delinquency prevention, etc. for rural youth who live in rural society, including who go out to metropolitan city for study. Based on this concept, the rural youth related facilities and problems were investigated in the area of education, culture and leisure, career, and problematic behavior.

The results were identified that the efforts of government and rural related institutions were in sufficient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facilities for rural youth, and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youth facilities was extended increasingly, in spite of seriousness of those rural youth problems.

Some of policies and programs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rural youth welfare; 1) To establish at least one activity facility in every Eup ; 2) To convert the public culture facilities such as museums, fine art museums, exhibition facilities, etc. into the culture and art facilities for rural youth; 3) To establish rural youth job information center in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xtension center; 4) To convert school to rural youth education and cultural center; 5)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welfare facilities for rural youth in metropolitan city.

Key Words : Rural youth welfare, Preventive services, Protective services, Curative services, Youth activity, Rural youth education, Rural youth career

I. 들어가는 말

“현재 농어촌에는 청소년이 있는가?”, “청소년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농어촌에 투자가 필요한가?”라는 말을 이따금씩 듣게 된다. 이제 농어촌지역은 더 이상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 단지, 전체 국민을 대신하여 농업을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투자도 영농을 후계할 인력의 양성이라는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왔을 뿐,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의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만한 것을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정한 계층으로부터 일반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고, 교육,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복지 범위의 확대가 오히려 도시와 농어촌간의 복지 격차를 상대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청소년들에게는 상실감을 더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사회에서는 그나마 학업성취도가 높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시로 가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농어촌에 남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간에는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적고, 도시지역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 흡연, 성관계, 가출 등의 일탈행동이 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좌절감을 맞보게 되는 것은 청소년복지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농어촌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은 결코 도시청소년 이상이 아니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복지만을 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촌사회에서 마치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여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제는 농어촌청소년들에게도 도시청소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청소년들도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의 차단, 양질

의 교육,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교육, 문화, 진로,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어촌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II. 농어촌 청소년 복지의 개념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초기의 청소년복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긴급구호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이후 요보호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특정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 선도의 개념으로 국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일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성이, 1993: 이종복 외, 2001). 즉,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잔여적 개념의 복지로부터 정상적인 청소년들에게 보호적, 치료적 서비스는 물론,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념의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활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성이, 1993: 4~6).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복지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수련활동 등의 시책과 함께 청소년 관련매체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청소년의 경우에는 복지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과 구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농어촌청소년을

용어 그대로 단순하게 정의하면, 농어촌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게 되는데, 농어촌청소년을 현재 농어촌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농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농어촌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농어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학업을 위해 도시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상에 정의되는 24세까지로 하면, 실제로 농어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4H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29세까지로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자는 각각 40세, 35세 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청소년 복지에 대한 논의는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농을 준비하거나 학업을 위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적어도 29세까지의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하며, 농어촌청소년복지는 일반 청소년들의 복지 범위에 영농과 학업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진출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Ⅲ. 농어촌 청소년 복지 시설 현황과 문제점

1. 농어촌청소년 교육과 관련시설

가. 농어촌청소년 교육시설 및 여건

그동안 농어촌의 학교교육은 초·중등학교의 의무화, 중·고등학교 진학률의 상승 등으로 교육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왔고, 전국 각지에 분포된 학교가 중심이 되어 농어촌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농어촌학교의 시설은 도시의 시설에 비해 열악한 데다가 특히 최근에는 학생수가 줄어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재·교구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해 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 통학상의 불편은 물론 주위환경이 교육적으로 조성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학생에 비하여 학력면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농어촌청소년들의 도시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4월 현재, 농어촌지역의 학교수는 초등학교가 2,688개교(50.5%), 중학교가 1,248개교(45.0%), 그리고 고등학교가 666개교(33.8%)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지역에 훨씬 많은 학교가 분포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34.5%)가 농어촌지역보다 조금 더

<표 1>

농어촌 지역 학교수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초등학교	1,394(26.2)	1,240(23.3)	2,688(50.5)	5,322(100.0)
중 학 교	865(31.2)	657(23.7)	1,248(45.0)	2,770(100.0)
고등학교	679(34.5)	624(31.7)	666(33.8)	1,969(100.0)

* 교육통계연보 (2001. 4. 1)

<표 2>

농어촌 지역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초등학교	1,848,902(45.2)	1,516,939(37.1)	723,588(17.7)	4,089,429(100.0)
중 학교	870,320(47.5)	671,382(36.7)	289,450(15.8)	1,831,152(100.0)
고등학교	935,839(49.0)	687,763(36.0)	287,571(15.0)	1,911,173(100.0)

* 교육통계연보 (2001.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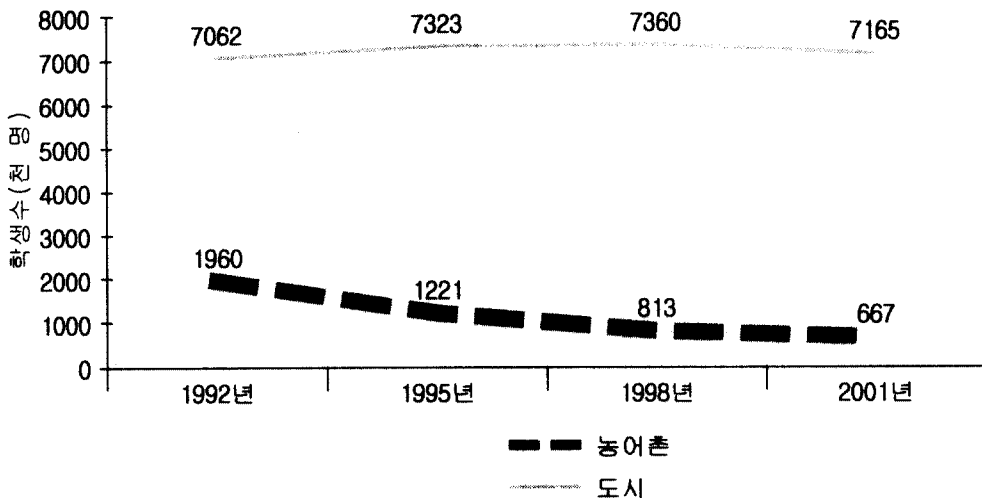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수는 초등학교생이 723,588명, 중학생은 289,450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287,57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같은 교급의 전체 학생수와 비교하면, 초등학교생은 17.7%, 중학생은 15.8%, 고등학생은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급학교일수록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 학생수를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군 단위 농어촌 지역 학생수는 1992년에 1,960,47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667,148명으로 65.97%나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지역 학생수는 1992년에

7,061,507명에서 2001년에는 7,164,606명으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어촌학생수의 감소는 농어촌의 교육적 환경이 대도시지역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농어촌청소년의 학업성적, 진학을 저하 등의 학교문제에 대한 조사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21.0%), '열악한 학습여건'(18.9%),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17.2%) 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수 외, 2000:94~96). 특히, 학교시설·설비 등은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림 1> 농어촌 학생수 변동 추이

<표 3>

학교 시설·설비 만족도

단위 : %(빈도수)

구 분	매우 불만	불 만	만 족	매우 만족	계
서울시	21.3	33.7	37.8	7.2	100.0(682)
광역시	23.3	35.4	34.4	6.9	100.0(1,033)
시군부	27.0	40.0	29.2	3.8	100.0(1,228)

* 이종원 외(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연구.

농어촌지역의 학교 시설·설비는 대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00년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등학교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시군부 지역의 청소년들의 만족도(33.0%)가 서울시(45.0%)나 광역시(41.3%)의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학습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청소년들에게

조차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오늘날의 농어촌교육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농어촌청소년의 도시유학 여건 및 시설

농어촌청소년들의 도시 유학의 증가는 농어촌보다 나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농어촌청소년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표 4>

농가가구의 연간교육비 지출

단위 : 원, %

년 도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교육비비율
1970	207,766	14,185	6.9
1975	616,280	38,443	6.2
1980	2,138,323	200,283	9.4
1985	4,690,854	555,338	11.8
1990	8,227,213	862,436	10.5
1995	14,781,890	1,553,337	10.5
1996	17,038,753	1,737,075	10.2
1997	17,044,886	1,753,798	10.3
1998	16,442,064	1,706,107	10.4
1999	17,123,221	1,652,714	9.7
2000	18,003,433	1,834,460	10.2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이종원 외(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표 5〉 서울지역 지방학사 현황

학 사	설 립 년 도	수 용 인 원	건 립 주 체
남 도 학 사	1994년	810명	남도장학회
충 북 학 사	1992년	270명	(재)충북학사
강 원 학 사	1989년	222명	(재)새강원의숙
제 주 학 사	2000년	300명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경 기 학 사	1990년	336명	경기도민회
전 북 학 사	1992년	308명	(재)전북꿈나무장학재단

개별 농가에게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970년 이후 농가가구의 연간교육비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IMF의 영향이 나타나는 1997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비 비율도 1970년에 6.9%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꾸준히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농가가구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농가가구가 IMF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어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에도 영향이 있지만, 등록금의 인상(7.5%), 하숙비 및 기타 교육비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장학회를 조직하여 서울 지역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사를 설립하여 출신지역 청소년들의 안정적 학업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학사는 6개소로 남도학사의 경우 최대 810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보통 300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1993년 12월 UR 타결로 인한 농어촌발전대책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 단위에 각 1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총사업비 360억원(1개소당 40억원)을 투입해 1995년부터 농어촌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7월 현재 기숙사 건립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소는 개원·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 및 강원도는 자체사정을 감안,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청소년백서, 2001:460~461).

그러나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학사는 아직까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어촌청소년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자녀 학비부담이 커진 가정의 경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농어촌 가정의 기숙사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숙사 지원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입사생 선발기준을 수능성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사 입사를 위해 또 다른 입시를 치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입사한 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생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학사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까지도 침해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표 6〉 전국 시·도별 문화시설 현황

구분	시·도별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291	746	543	453	442	424	161	1,824	624	568	925	933	1,111	942	976	572	13,535
○공연시설	365	87	58	61	48	44	23	198	58	41	39	47	46	67	71	21	1,274
-공공공연장	35	10	7	10	9	2	3	41	29	14	16	19	22	30	15	7	269
-민간공연장	112	32	14	10	12	16	10	23	7	7	2	5	9	4	19	3	285
-영화관	218	45	37	41	27	26	10	134	22	20	21	23	15	33	37	11	720
○전시시설	324	68	48	17	54	27	7	93	41	45	37	41	57	38	49	36	982
-박물관	60	8	5	3	5	10	1	27	15	13	16	10	6	17	17	9	222
-미술관	17	3	-	3	3	3	-	11	-	-	3	-	3	2	1	2	51
-전시실	25	12	4	6	5	6	1	39	22	26	14	22	39	17	25	11	274
-화랑	222	45	39	5	41	8	5	16	4	6	4	9	9	2	6	14	435
○지역문화복지시설	151	67	38	60	37	35	9	235	145	99	66	140	121	181	110	37	1,531
-시·군·구민회관	18	-	3	-	2	-	-	14	7	12	7	6	20	14	6	3	112
-문화의집	18	2	1	1	2	1	1	11	7	4	6	5	4	4	10	3	80
-복지회관	87	45	22	43	19	16	2	122	71	38	24	82	63	98	40	7	779
-청소년시설	28	20	12	16	14	18	6	88	60	45	29	47	34	65	54	24	560
○문화보급전수시설	25	9	7	6	9	6	3	36	23	16	24	28	32	33	30	2	289
-문화원	22	7	7	3	5	5	3	31	18	12	17	14	22	23	20	2	211
-국악원	1	-	-	2	3	1	-	1	1	3	2	7	4	6	2	-	33
-전수회관	2	2	-	1	1	-	-	4	4	1	5	7	6	4	8	-	45
○도서관	1,426	515	392	309	294	312	119	1,262	357	367	759	677	855	623	716	476	9,459

* 자료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2. 농어촌청소년 문화·여가와 관련 시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000년 12월 현재 전국에 13,535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291개로 가장 많고, 경기 1,824개, 전남 1,111개, 경남 976개, 경북 942개, 전북 933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도별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도시와 지방간에는 시설 수나 그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농어촌청소년들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농어촌청소년들의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적으며, 그 중요한 원인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시설 부족과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관람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은 농어

<표 7> 지난 1년간 관람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 비율

(단위 : %)

구 분	영 화	연 극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대중음악 공연	스포츠 경기
대 도시	4.4	66.1	30.6	59.4	61.4	61.7
도시근교	19.7	73.2	49.2	70.2	62.3	74.1
농 어 촌	33.9	82.0	53.1	73.9	65.0	67.8

<표 8> 문화·여가생활의 장애요인

단위 : %(빈도수)

구 분	정신적 여유 부족	비용부족	시설부족	시간부족	가족이해 협조부족	기 타	전 체
대 도시	15.3	35.3	7.1	34.0	4.4	3.8	100.0(365)
도시근교	11.6	38.8	16.9	24.1	3.9	4.7	100.0(361)
농 어 촌	9.5	33.3	34.0	15.4	4.6	2.4	100.0(421)

<표 9>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빈도수)

구 분	매우 불만	불 만	보 통	만 족	매우 만족	전 체
대 도시	2.7	15.8	39.6	33.9	7.9	100.0(366)
도시근교	4.1	20.7	48.7	19.6	6.6	100.0(362)
농 어 촌	8.1	24.8	43.3	18.1	5.7	100.0(420)

촌청소년의 경우 영화관람 33.9%, 연극관람 82.0%, 박물관·미술관관람 53.1%, 음악회관람 73.9%, 대중음악공연관람 65.0%, 경기장에서의 스포츠경기관람 67.8%로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영화관람 4.4%, 연극관람 66.1%, 박물관·미술관관람 30.6%, 음악회관람 59.4%, 대중음악공연관람 61.4%, 경기장에서의 스포츠경기관람 61.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수 외, 2000: 128~143).

농어촌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경험이 대도시나 도시근교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은 농어촌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적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청소년들은 문화여가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비용이나 시간부족(34.0%)을 들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청소년들은 시설부족(34.0%)을 비용부족(33.3%), 시간부족(15.4%) 등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어촌청소년들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도 대도시나 근교도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청소년들은 현재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서 23.8%(‘만족’ 18.1%, ‘매우 만족 5.7%’)만이 만족하고 있었는데, 대도시(41.8%)나 도시근교(26.2%) 청소년들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농어촌청소년의 진로와 관련 시설

21세기 기술정보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청소년 시절부터 직업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희망하는 직업 현장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학교와 각종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체험, 취업알선 등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노동부, 2002).

농어촌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

다. 주로 4-H를 통하여 농업과 관련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H는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2002년 1월 현재 4-H의 조직 수는 2,493개로서 61,857명이 활동하고 있다.

4-H 회원교육은 농업의 근대화에 목표를 둔 우수농장 입주훈련과 4-H 농공훈련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영농 4-H 회원에게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유통가공현장 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알아볼 수 있는 과제교육을 비롯해서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회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4-H 후원회를 통하여 각종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4-H 회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4-H 회원들의 외국 선진농업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우방국 농어촌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International 4-H Youth Exchange)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농어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농어촌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치 못하며, 농어촌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농어촌청소년들도 도시지역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필요한 직업으로 농업 이외에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는

<표 10>

4-H회 조직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영 농 4-H				학 생 4-H				일 반 4-H			
		소계	작목	읍면	기타	소계	학교	이동	기타	소계	직장	교회	기타
조직수	2,493	1,182	238	903	41	1,228	1,152	47	29	83	20	3	6
회원수	61,857	15,696	2,313	12,711	672	44,439	42,338	1,265	836	1,722	264	86	1,372

* 농촌진흥청(2002). 청소년 지도활동 보고.

<표 11>

농어촌청소년의 문제행동경험

단위 : %(빈도수)

구 분	음주	흡연	성관계	음란비디오 시청	음란사이트 시청	음란전화	가출	기물파괴	도박노름	폭력행위	본드 환각제 흡입	돈·물건 훔치기	패싸움	전체
대 도시	66.1	28.5	11.7	36.0	33.6	4.1	8.9	19.8	19.0	19.5	2.7	18.4	10.0	100.0
근교도시	72.8	48.6	21.2	56.6	45.1	8.2	12.9	21.2	30.2	26.9	4.9	18.1	12.6	100.0
농 촌	67.7	48.1	24.3	52.4	46.0	9.2	15.8	29.5	27.6	27.1	5.9	18.4	17.0	100.0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표 12>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지 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립수	12	6	3	1	1	0	1	2	30	1	14	13	3	8	15	1
설 치 비 율	50.0	35.0	30.0	13.0	20.0	0	20.0	11.0	100.0	9.0	100.0	93.0	14.0	35.0	75.0	25.0

‘첨단기술자’(14.2%), ‘교사’(11.5%), ‘연예인’(10.6%), ‘의사’(10.6%) 등을,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첨단기술자’(14.9%), ‘공무원’(12.3%), ‘회사원’(11.7%), ‘교사’(9.7%)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농어촌청소년들은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지역 중학생의 38.6%, 고등학생의 19.4%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 중학생의 42.6%, 고등학생의 34.6%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에서의 차이는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 진로교육, 취업정보, 훈련기관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김성수 외, 2000: 96~105).

4. 농어촌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 시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주로 도시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농어촌 청소년들의 경우는 문제행동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결과는 농어촌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제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농어촌 청소년들은 ‘음주’(67.7%), ‘음란비디오 시청’(52.4%), ‘흡연’(48.1%), ‘음란사이트 시청’(46.0%), ‘기물파괴’(29.5%), ‘도박·노름’(27.6%), ‘폭력행위’(27.1%), ‘성관계’(24.3%), 돈·물건 훔치기(18.4%), 패싸움(17.0%), 가출(15.8%) 등 모든 부분에서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

수 외, 2000: 58~63).

그러나 이러한 문제행동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적절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설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청소년상담,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상담,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8%만이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과 지역 내 청소년 상담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지역 내 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나 상담실내의 전문인력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1~2명 정도의 수준으로 목적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문화관광부, 2001: 472~475).

또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쉼터'도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9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5개소, 순수 민간쉼터 1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결국, 농어촌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대도시청소년들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거의 없으며, 농어촌청소년들은 문제행동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농어촌 청소년 복지시설 확보 방안

1. 읍 단위에 최소 1개의 생활권수련시설 설치

생활권 수련시설은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생활권수련시설은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어촌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농어촌청소년들에게 도시지역의 청소년들과 같이 각종 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읍 단위에 1개의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각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의 시설과는 차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에 적합한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 특히,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들을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문화예술체험시설로 활용

농어촌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청소년들에게 시설을 정기적으로 개방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청소년교실, 농어촌청소년실기대회 등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시설에서는 농어촌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시·군청 및 교육청 등에서는 정기 버스를 제공하는 등 농어촌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지역 농업기술센터 내에 청소년 정보·직업체험센터 설치

전국적인 조직과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정보·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과 전문인력의 배치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참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자녀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로 전환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문화활동, 정보통신활동, 동아리활동, 체육활동, 청소년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교육·문화 센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댄스실, 공연실, 영화상영관 등을 설치하고, 바람직한 정보활동을 위해서 정보검색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디자인, 게임, 음반 등 첨단문화산업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소규모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문제를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최소 1인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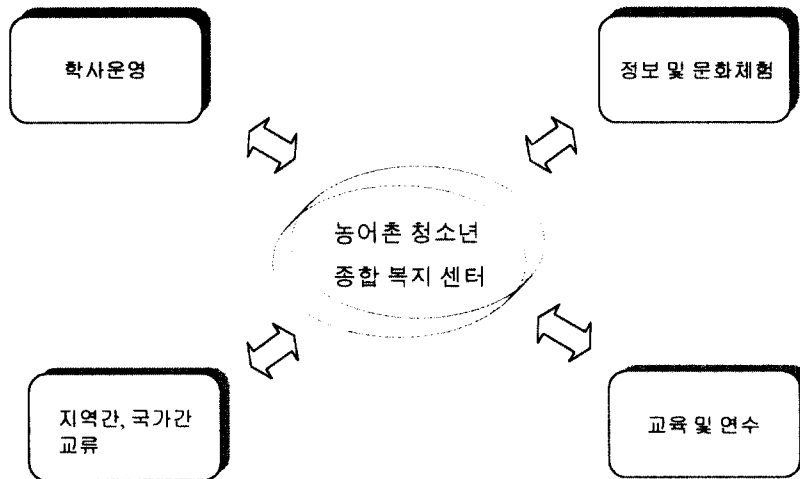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현재 농어촌지역 학교에 확보되어 있는 시설과 인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과 장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도시지역의 농어촌청소년 종합복지공간 조성

그동안 도시지역의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지역학사나 4-H 회관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으나 분출하는 농어촌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여왔다. 농어촌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직업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21세기 국가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종합복지공간에는 농어촌출신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기숙사의 제공은 물론, 문화활동과 연수활동, 직업체험활동, 그리고 도농간, 국가간, 지역간 교류활동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종합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사 운영은 자기 지역 출신에만 한정하던 기존 학사의 폐쇄적 성격을 탈피하여 여러 지역의 농어촌청소년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간의 상호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을 위해 도시에 유학하고 있는 농어촌청소년 뿐만 아니라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시청소년들과 같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4-H 등 농어촌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학술회의를 위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농어촌청소년들의



<그림 2> 도시지역 농어촌청소년 종합복지센터 모형

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어촌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농어촌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이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6. 관계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다양한 자원 확보

농어촌청소년의 복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농림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촌진흥청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보다는 상호 연계함으로써 농어촌청소년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청소년육성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비롯한 농어촌 관련 복지재단의 적극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농어촌복지기관에서는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청소년복지에 대한 요구는 특정 청소년으로부터 모든 청소년들에게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촌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청소년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농어촌에 남아있는 청소년들은 도시 청소년들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패배주의적 의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청소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농어촌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농어촌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농어촌청소년 복지 시설 증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복지 시설 확보를 위해서 첫째, 읍 단위에 최소 1개의 생활권수련 시설을 설치하고, 둘째,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문화예술체험시설로 활용하며, 셋째, 지역 농업기술센터 내에 청소년 정보·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고, 넷째,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로 진출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숙사의 제공은 물론, 문화활동과 연수활동, 직업체험활동, 도농간, 국가간, 지역간 교류활동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농어촌청소년 종합복지공간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농어촌청소년 복지시설의 확보를 위해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특히, 농어촌복지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VI. 참고 문헌

1. 권일남 외, 1999, 농촌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방안과 문화프로그램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농민연구소.
2. 김동일 외, 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3. 김동일, 1995, 한국의 농촌청소년-2000년대를 향한 한국의 농촌청소년연구. 서울: 문음사.
4. 김성수, 1985, 한국 농촌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7, pp. 15-23.
5. 김성수, 2000,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청소년. 오늘의 청소년, 12월호, pp. 29-34.
6. 김성수 외, 2000, 21세기 농촌청소년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7. 김성이, 1993,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복지론(pp. 3-19).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8. 노동부, 200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
9. 농촌진흥청, 2002, 청소년 지도활동 보고. 미간행물.
10.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농촌청소년의 사회·문화의식 및 소비행태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4-H연맹 부설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11. 문화관광부, 2001, 청소년백서.
12. 서규선, 1990, 농어촌 청소년단체 활동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 청년연구, 제13집, pp. 17-50.
13. 서규선, 2000, 21세기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 제1호, pp. 1-2.
14. 이상하, 1990, 농촌청소년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청년연구, 제13집, pp. 3-15.
15. 이종복 외, 2001, 현대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16. 이종원 외, 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7. 이종원 외, 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8. 정지웅, 1984, 한국의 농촌 - 그 구조와 개발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 차경수, 2000, 한국의 청소년정책. 서울: 양서원.
20. 최민호, 199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1. 최 협, 1995, 한국 농촌청소년의 문화적 환경. 전남대 현대사회과학연구 6, pp. 1-37.
22. 교육부, 2001. 4, 교육통계연보.
23. 홍동식, 1987, 한국의 도시화와 농촌의 저발전. 현대사회, 7권 3호, p. 131.
24. Dillman, D. A., & Hobbs, D. J., 1982, Rural society in the U.S.: issues for the 1980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Inc.
25. Flora, C. B., & Christenson, J. A., 1991, Rural policies for the 1990s.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26. Helve, H.(ed.), 2000, Rural young people in changing europe. Helsinki: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27. Seidl, Andrew, Mulkey, David, and Blanton, Denise, 1999, Youth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High school survey researchers in Immokalee, Florida. <http://www.joe.org/joe/1999february/rb2.html>

(2001년 10월 26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